



형난옥 주간

도감의 대중화 시대 열다

현암사 형난옥 주간

도감은 제작자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 속에서 태어난다. 저자를 섭외하고 좋은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기다리면서 도감 기획자는 '장인'으로 거듭난다. 도감 출판 10년 동안 형주간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한편의 도감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동해 뛰어난 수준의 도감을 만들 수 있는 제작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1990년부터 펴낸 <우리 문화 우리 자연> 시리즈와 후속으로 기획한 <쉽게 찾는 핸드북> 시리즈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도감 대중화 시대를 연 현암사의 형난옥 주간(43). 형주간은 “도감 만들 실력이면 못 만들 책이 없다”며 도감출판 10년을 되돌아봤다.

그만큼 도감은 제작자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 속에서 태어난다. 저자 섭외, 좋은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한 기다림, 교정에 교정을 거듭하며 오류를 발견해내는 과정을 겪다보면 도감 기획자와 편집자들은 '장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꽃이를 쉽게 알리는 것에 초점 맞춰

형주간의 지휘 아래 지금까지 현암사에서 출간된 도감류는 총 26종 35권. 형주간이 도감출판에 뛰어든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계기가 됐다.

“소설이나 시에 나오는 꽃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궁금했죠. 도감을 펼쳐 봤지만 실린 사진들이 대부분 너무 작고 흐릿했습니다. 학명도 부정확했고 촬영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죠.”

형주간이 볼 때 1980년대 국내 도감출판의 수준은 낮았고 사람들은 꽃이나 나무 하면 정원수부터 떠올렸다. 제대로 된 도감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형주간의 머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야생화 전문가 김태정씨였다. 지금은 한국야생화연구소장이지만 그때만 해도 무명이었던 김씨는 형주간의 출간 제의를 반갑게 받아들였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이 그가

20년 동안 산하를 돌아다니며 찍은 들꽃 사진을 바탕으로 바로 제작에 들어갔다.

그 때 형주간에겐 원칙이 있었다. 일반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감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꽃이름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학명과 과명을 무리하게 들이밀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초판 2천부를 찍었으나, 6개월만에 1만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처음엔 학자들이 주 독자층이겠거니 예상했는데, 의외의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문인과 환경연구 단체부터 학교 교사들까지 독자층의 폭이 상당히 넓었죠.”

시리즈 첫권 제목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꽃 백가지(전3권)》로 정했다. 교정 작업에 직접 참여했으나 꽃에 대한 사전정보가 거의 없자 다보니 슬라이드 분류작업도 힘들었다. 그래서 작가를 따라 직접 현장답사를 떠났다.

“눈발에 등성등성 돌아난 풀밭에 안보이더군요. 그러다 김태정씨를 따라 몸을 굽히고 자세를 낮추니 조금씩 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꽃이 핀 주위로 눈이 녹아서 등그런테를 이루고 있었죠.”

그때 형주간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꽃이 아니라 ‘색깔’이었다. 그는 여기서 <…핸드북> 시리즈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것은 “아예 분류체계를 바꿔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쉽게 찾는 우리나라(전4권)》(서민환 외)다. 이 책은 나무를 꽃 색

깔별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형주간은 자신이 기획한 시리즈물들이 서로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시스템 정착시켜

“독자들이 백과사전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력을 높이고, 손에 쏙 들어오는 ‘핸드북’을 현장에 들고 나가 확인학습한다면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시너지’가 따로 있었다. <…우리꽃 백가지>를 출간하고나서 책 홍보를 위해 식물사진을 박아넣은 엽서를 판매해 광고전을 펼친 것. 현재 10매 1세트 2,000원에 판매하는 이 엽서는 총 47세트가 나왔으며, 책을 사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도감출판 기획자가 갖춰야 할 요소는 무엇보다 좋은 사진을 가려내는 감식안입니다. 예쁘다고 좋은 사진이 아니라 얼마나 식물과 흡사하느냐가 관건이죠. 컬러를 조정하고 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능력, 눈에 잘 띄게 배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주간을 뿌듯하게 하는 업적도 하나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동 집필하는 제작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현장전문가와 학계가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만연했고, 이는 좋은 도감의 탄생을 막는 장애요소였다. 하지만 형주간은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이들을 ‘한 식구’로 만들었다. 진정한 에디터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 강성민 기자